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illegible]

社說
朝鮮의工業化와勞働問題
—工場法을制定하라—

一

朝鮮에 晩近 近代的 機械工業이 勃興하는것은 不誣할 事實이다。特히 滿洲事變以來 財政及 經濟政策의 膨脹政策으로 日本內地의 企業家들이 朝鮮에 大規模의 工場을 세우는것은 顯著한 傾向이다。朝鮮人의 利害를 不問하고 企業家는 利益을 目的하고 朝鮮에 投資하게 되는것은 必然的 事實이다。日本內地에 重要産業統制法이 施行되매 그 蓄積된 資本의 [illegible] 困難한 資本家로 統制法이 업고、工場法이 업서 企業에 何等 制限을 밧지 안는 朝鮮에 大規模의 投資를 하라는것은 不可避의 傾向이다。詳細한 統計를 들것도 업시 最近 數三年內에 紡績業 其他 工業의 分工場이 永登浦以外 諸都市에 簇生하는것은 這間의 消息을 짐작할것이다。

二

朝鮮에 工業이 勃興하면 朝鮮에 如何한 場面이 展開될지 이것은 이미 豫想한바다。表面은 農村人口가 都市에 吸收되매 農村疲弊를 말하는 現下에 잇서 반가운 現象이며 都市 無職한 사람들에게 職業을 가질 機會를 주니 또한 깃거울 事實이다。그러나 그 裏面을 살펴보면 朝鮮과 가티 勞賃에 對해서나 勞働時間에 對해서나 其他 工場設備及 勞働者待遇에 잇서서 何等 制限이 업는 곳에서는 勞働者의 酷使로 營養不足、發病等 여러가지 陰影한 現象을 이르킨다。最近 調査에 依하야 볼지라도 昨年과 今年間에는 物價가 二割以上 騰貴되엇슴에도 不拘하고 勞賃은 一般으로 低下하고 勞働時間은 延長되엇다。그박게 病時에도 賃銀을 바드며、機械에 死傷햇슬때 慰勞金을 주며、退職할때 手當을 주며 産前産後의 婦人에게 最小限度의 休暇를주며、婦女子、幼年工에게 夜業及 鑛山勞働을 禁止하는等 保障이 업기때문에 勞働者가 酷使되는것은 當局도 認定하는바이다。

三

이 때문에 當局은 數年前 工場法을 制定코저 關係方面의 資料를 蒐集中이라 하더니 그後 듯건대 朝鮮가티 産業이 이러나기 始作한곳에 工場法을 쓰면 企業의 勃興形勢를 減殺하리라하야 工場取締規則이란 名目으로 極히 簡單한 法規를 制定하리라한다。工場法을 制定하면 工業이 勃興되지 안는다는 것은 結局 企業家의 酷使와 誅求를 放任하자는것과 마찬가지니 工業을 이르켜 國家와 社會에 利益을 끼친다함은 빈말이오 世上에서 評하는것과가티 結局 資本家를 利롭게한다는 非難을 免치 못할것이 아닌가。아즉 그內容을 알수업스나 傳하는바와가티 工場의 照光裝置라든가 其他 衛生設備가 잇는데에만 用意하고 [illegible]한 待遇問題를 除去해버린다 할것가트면 그야말로 先進諸國의 工業이 勞働者의 汗血의 結晶에서는 이러한 不幸한 [illegible]를 지一한 工業을 [illegible] 資本家의 [illegible] 實現할것이다。[illegible] 反省을 促하는바이다。

北海一帶 占據한十九路軍
抗日戰備를進行
兵力增大코塹壕構築
中央側撤退要求에不應、市民서혀反對通電

【香港十三日發同盟】廣西省南寧來電에 依하면 北海一帶를 占據하고잇는 十九路軍은 徹底的으로 抗日戰備를 進行中인데 中央側의 撤退要求에 反對하기爲하야 北海市民을 使嗾하야 各方面에 同軍의 北海撤退反對通電을 發케하는同時에 代表者를 南寧에 派하야 李、白兩氏에게 對하야 翁照垣氏로하여금 北海一帶의 治安維持에 當케하고 萬若 外敵이 侵入하면 便宜處置케하도록 請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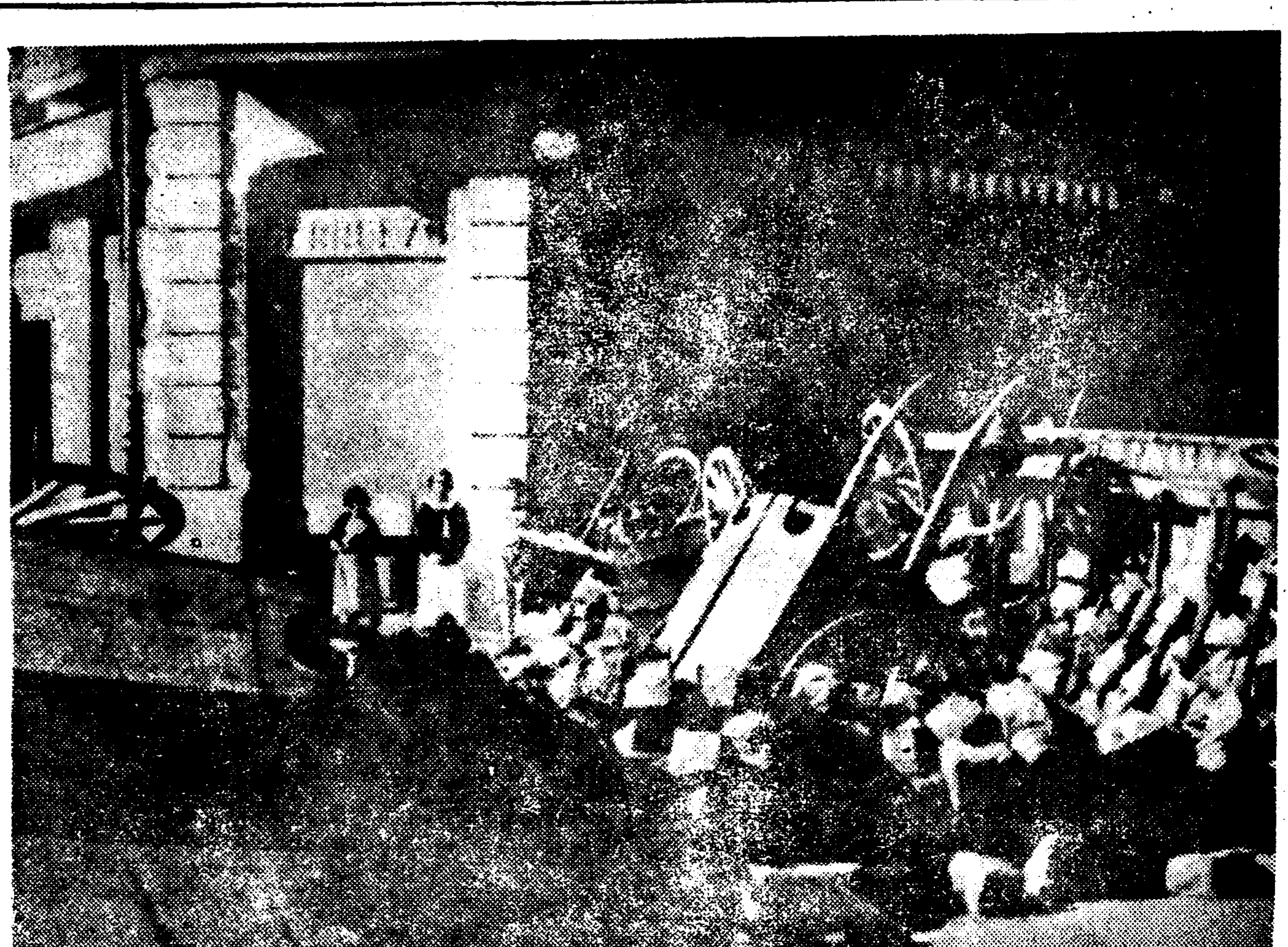
【香港十三日發同盟】中央側의 撤退要求에도 不拘하고 依然 北海一帶를 占據하고잇는 十九路軍은 그後 南部各縣의 防備를 益益 嚴重히하야 各要衝과 海岸線에 塹壕 堡壘를 構築하는 同時에 兵力을 增大하야 끗까지 占領地帶를 保持하려고하고 잇는데 廣東當局에의 入電에 依하면 翁照垣은 萬若日本軍이 主權을 侵害하고 野心的行動을 取하면 이를 痛擊하라고 放言하고잇다 또 中國側一般도 十九路軍의 徹底的交戰準備에 依한 事態의 險惡化를 자조 傳하고잇다

梨本宮殿下
南朝鮮防空演習御統監

【東京電話同盟】十四日午前十一時半 發表

來九州及南朝鮮地方防空演習을 御統監하실 梨本宮殿下의 御行動 御豫定은 如左히 決定되엿다(朝鮮關係分)

▲九月三十日 午前八時 八幡御宿泊所御發
同十時 門司御着
同十時二十分 下關御着
同十時三十分 下關 關釜連絡船에御乘船
午後六時 釜山着 釜山統監部出張所御着
同七時부터 三十分間 同所에서 防護訓練御視察
同七時三十分부터 八時까지 龍頭山에서 燈火管制御視察
同八時半、海雲台御着 溫泉호텔에 御宿泊
▲十月一日 午前十一時 自動車로御出發 演習을 御視察하신後 正午 海雲台御着
午後二時 溫泉호텔御發
同三時三十分 蔚山御着 蔚山城址御覽
同四時三十分 蔚山御發
同五時三十分 佛國寺호텔에 御着
▲二日 午前九時 御宿泊所 御出發 石窟庵 佛國寺를 御視察하시고 同十一時半 佛國寺호텔에서 御晝食
午後一時 同호텔御發 慶州御巡覽
同 三時 慶州御發
同五時十分 大邱御着
同五時三十分 臨時列車로大邱御發
同八時五十分 釜山御着 鐵道會館에서 御休憩하신後 同十一時半 關釜連絡船御乘船
▲三日 午前七時半 下關御着



叛軍이드데여 入城하엿다는산·세바스찬의거리의 一點景

對中交涉援助次
武官、南京에向發
蔣氏、折衝에直接出馬?
現地三省首腦部最後的協議

【上海十三日發同盟】大使館附陸軍武官喜多少將과 補佐官 宇都宮少佐、同海軍武官 佐藤少將 同補佐官 湊中佐一行은 十三日午後十一時 上海發列車로 南京에 向하얏다 今後交涉의 重大性에 鑑하야 南京에서 隨時 川越大使와 協議進言하고 交涉에 잇서서 日本側의 目的貫徹에 邁進할려이다

【南京十四日發同盟】成都事件、北海事件의 重要日中交涉開始에 當하야 川越大使를 補佐하고 隨時 重要進言을 할 喜多、佐藤陸海武官은 十四日朝 南京着 即時로 大使館에 들어가 先着한 川越大使、須磨總領事 中原南京駐在 武官으로부터 今日까지의 折衝經過와 現地調査에 對하야 詳細한 報告를 聽取한後 交涉議題에 關하야 日本側의 最後的方針을 決定하엿다 그런데 川越大使는 右最後的方針에 則하야 마츰내 本格的交涉을 開始할 順序가 되엇는데 外交部長 張群氏와의 第一回 會見은 明十五日이될 模樣이다 一方蔣介石氏도 交涉案件의 重要性에 鑑하야 早急히 廣西問題의 結末을 짓고 歸還하야 川越大使와 日中國交調整에 關한 根本問題에 關하야 重要折衝을 할것으로 보인다

軍艦球磨○○에急航

【馬公十三日發同盟】軍艦球磨는 十六驅逐隊와함께 十三日 馬公에 入港하야 食糧其他를 補給한後 午後二時 ○○에 向하야 出航하얏다 十五日 ○○에 到着할려이다 또 馬公要港部에의 情報에依하면 十三驅逐艦早苗、吳竹은 十三日朝 北海到着 嵯峨와 對策協議中이다

佛植民地長官會議

【巴里十一日發同盟】西班牙內亂의 [illegible] 地中海沿岸의 佛領植民地는 [illegible] 動搖를 豫防中인데 [illegible] 十一日 各植民地長官에게 對하야 [illegible] 植民地長官會議를 [illegible] 開하고 [illegible] 그對策을 [illegible] 附하고잇다

政務總監訓示
各道農務課長會議서

各道農務課長會議는 十四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 開催되엿는데 席上 政務總監의 訓示要旨는 如左하다

米穀問題는 國民半以上을 占하는 農家의 主要生産物로서 國民全般의 經濟와 國民生活에 至大한 關係를 가지고잇스므로 그 [illegible] 價格調節을 圖하는것이 極히 緊要한것임은 [illegible]치안는다 米穀自治管理法은 日本內地、朝鮮及臺灣을 通하야 米穀의 供給이 過剩되는境遇에 內外地에서 自治的으로 過剩米穀을 統制함으로써 그目的으로하는것이다 (中略) 本法의 目的及 趣旨는 只今 말한바와가거니와 그所期의 成果를 어덧고 못어든것은 全혀民間의 自治的統制의 [illegible]에 存하는것이므로 그 指導者의 任에 잇는各位及 部下職員은 十分 [illegible] 本法所期의 目的達成上 遺憾이업기를 바란다 마즈막으로 한마디 附言할것은 [illegible] 朝鮮의 [illegible]는 大部分 [illegible]

文相、首相을訪問
審議會設置無意義進言

【東京電話同盟】平生文相은 十四日午前十時半 廣田首相과 會見하고 義務敎育二個年延長案에 關하야 首相의 意向이라고 傳하는 敎育制度改革을 爲한 官民各方面의 權威者를 網羅한 審議會를 設하야 義務敎育延長問題를 包含한 全般的 學制改革具體案을 審議하려고 한다는데 關하야 그眞僞를 質問하엿다 이에 對하야 首相은 敎育問題에 關해서는 相當히 考慮하고 잇스나 아직 何等 決定된것이 업다 [illegible] 文相은 이에 對하야 文部省에서는 이미 幾多의 案을 세워 文政審議會其他에 諮問하엿다 그런데 首相이 또 이우에 審議會를 設하야 此等改革案을 討議하는것은 부질업시 歲月을 消費하야 자미업는 結果를 生할 念慮가잇다 今日 義務敎育年限延長問題는 議論時代가아니오 實行時代이다 全般的改革은 相當히 어려우나 義務敎育年限延長問題는 이와 分離하야 實行하도록 協力해주기 바란다고 希望하고 十一時半分 辭去하엿다

大野政務總監
遞信關係官署視察

大野政務總監은 山田遞信局長을 帶同하고 京城遞信分掌局、[illegible] 巡視하야 十四日午後二時 [illegible]

보로쉬로프將軍
赤軍將士를激勵

【민스크十三日發同盟】蘇聯西部國境백로·러시아 地方赤軍大演習은 十一日로써 終了하고 十二日 민스크府에서 보로쉬로프國防人民委員長 檢閱下에 盛大한 閱兵式이 擧行되엿다 式이 끗나서 보로쉬로프將軍은 演習參加의 赤軍과 민스크地方 勞働者、農民에게 對하야 赤軍에의 信賴와 스탈린氏에의 歡迎을 說하고 平和의 防衛를 爲하야 赤軍의 使命을 高調한 激勵演說을 行하얏다

人事·集會

▲金桂祚氏(會文貿易株式會社取締役會長兼常務取締役)新任人事次來社
▲平山良吉氏(同社社長)同上
▲韓重熙氏(同取締役兼營業所長)同上
▲尹明鉉氏(同常務取締役)同上

夕刊後市況 十四日

◆大阪 短期 新記◆

大新	七一〇〇	(二〇高)
新東	一七三五〇	(四〇高)
日新	八二〇〇	(不變)
東新	一三四七〇	(六〇高)

◆橫濱 生糸 後前◆
當限 七一六〇〇 先限 七一五〇〇
◆福井 人絹 後前◆
當限 [illegible] 先限 五八六〇

左右兩翼挾擊으로
佛對西策決定難
極左派는西政府武力援助主張코罷業示威
右派、不干涉固持希望

【東京電話同盟】十四日 外務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佛國불룸內閣은 最近 左右兩翼의 挾擊에 依하야 西班牙內亂에 對한 態度를 決定치안흘수업는 事態에 當面하게되엇다고한다 佛國極左勢力은 西班牙內亂援助下에 飛行機、大砲를 보내라는 決議를하야 이目的을 貫徹하기爲하야 第二次大罷業斷行도 不辭한다고 豪語하고잇는것은 蘇聯邦과 西班牙政府軍의 一身一體의 眞相을 暴露한것이라고하며 佛國急進派는 蘇聯볼쉐비즘의赤의 一線이 濃하게 巴里의 心臟을 貫徹하는것을 두려워하야 政府首腦部로 하여금 對西不干涉協約의 嚴格한 實施를 要求하고 잇는데 불룸首相은 終始一貫한 對西政策을 實施할수 업서 文字그대로 首相府의 [illegible] 同樣[illegible]의 慘狀에도 着目하면서 今日에至하엿는바 去十日 뉴른베르히市의 나치스黨大會에서 獨逸政府首腦部가 斷乎 對볼쉐비즘宣戰의 必要를 强調하엿는데 이에 對하야 佛國의 右翼諸團體가 지금까지 民族的對立을 超越하야 極히 好意的解釋을 내리고잇다는 事實은 全히 불룸內閣及 佛國自身의 運命에 對하야 [illegible]의 感을 與한것이다。

그리고 獨逸으로서는 蘇聯邦佛國 西班牙로因하야 나치스에對한 强力的인 볼쉐비즘 包圍形勢를 [illegible] 蘇聯邦과 佛國의 接近하야 最少限度로 佛蘇軍事同盟의 一半을 切斷시키려고 [illegible]하고잇는것이 判明되엇슴으로 日本政府로서는 [illegible] 成立될것을 생각하면 假令 反獨西班牙叛亂으로부터 湧出하는 中央歐羅巴諸國의 勢力抗爭에 [illegible] 右翼國粹政府의 成立을 此際에 오히려 歡迎하는것이다 따라서 西班牙叛軍을 援助하는것과 同等以上으로 [illegible] 佛國右翼諸團의 [illegible] 中이다

國際聯盟理事會
十八日부터開會(改組案討議乎)

【쥬네브十三日發同盟】第九十三回聯盟理事會는 來十八日부터 第十七回總會는 同二十一日부터 各各 聯盟新會館에서 開會될터이다 今回의 會議의 中心議題는 무엇보담 聯盟改組案으로 아브놀事務總長은 理事會 開會와 함께 이미 各國政府로부터 事務總長에 到達한 聯盟改組案에 關하야 報告하고 各國代表는 第十六條의 制裁規定을 中心으로 激烈한 論議를 展開할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英國政府는 過般의 [illegible] 聯盟改組案을 時期尙早라고 看做하야 積極的으로 同問題에 [illegible]할것이라하며 伊太利는 聯盟과 사이가 조치못하므로 今回의 理事會及 總會에는 出席치 안흘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llegible] 常任理事會의 [illegible]으로 中國이 [illegible] 丁抹三國의 常任理事國 任[illegible]

抗日氣勢猛烈로
調査員上陸不能
海軍側에到着한情報

【上海十四日發同盟】海軍側에 到着한 北海現地情報에 依하면 北海一帶를 占據하고잇는 十九路軍은 蔣介石氏及 廣西政府當局의 撤退命令은 勿論 其他如何한 命令도 接收치안는다고 稱하야 反抗하고 一部는 北海의 港外를 警備하야 目下形勢로는 小舟조차 近接시키려 하지안코 또 民船의 食糧輸入을 妨害하고 交通通信은 一切杜絕되엿스며 同地在留佛國人 其他外國人의 發信을 妨害하고 잇는 一方 各民衆團體도 日本側調査員의 上陸을 拒絕하고잇는等 抗日氣勢猛烈하므로 이러한 狀態로는 日本側調査員의 上陸은 全然 不可能하야 此際軍艦又는 飛行機에 依하야 有効適切한 撤退勸告를 하지안는限 十九路軍撤退는 實行되지안흘것으로 보인다 또 中野氏의 死體는 [illegible] 어데인지 가저가서 行方不明이며 또 安否念慮되는 同家家族도 現在消息不明이다

國府와의嚴談을
有田外相再訓令

【東京電話同盟】北海事件의 現地調査에 關하야 有田外相은 十[illegible]日 須磨南京總領事에 對하야 十九路軍의 撤退取締를 거듭 國民政府에 要求식히기로 되엿다 國府當局은 過般須磨總領事의 要請에 對하야 日本側의 調査員의 北海上陸及 그 職務遂行에 關하야 曖昧하게 責任을 十九路軍에 轉嫁하고 日本의 要求에 應치안흐므로 日本政府는 今般 左의 方針에 基하야 어데까지든지 既定方針대로 目的貫徹에 邁進하게 되엿다

一、日本은 엇쨋든 南中當局及 國府代表인 兩廣外交特派員과의 協定에 依하야 日本軍艦을 北海港外에 碇泊식히고 調査員은 中國艦船으로 上陸 中國側保護下에 調査를 遂行하려는 極히 公平한 態度를 取하엿슴에 不拘하고 國府는 十九路軍의 [illegible]를 理由로 此를 拒絕하는 態度를 示하고잇슴은 黙許할수업다

一、十九路軍問題는 中國의 內政問題로 日本서 關知할배아니나 右는 國府의 威力으로써 政治的解決을 圖謀하여야할것이다

一、國府의 不誠意에 依하야 日本調査에 支障이 생기는 境遇는 實力行使도 不辭하며 此에 依하야 生할수잇는 一切의 責任은 全部國府가 負하여야 할것이다

米巡洋艦燒失事件
裏面에共黨介在?

【華盛頓十二日發同盟】米國海軍省은 巡洋艦인되아나폴리스號燒失事件背後에 共產黨의 策動이 잇섯다는 疑惑에 鑑하야 十二日 第三海軍區當局에 對하야 事件眞相의 徹底的調査를 命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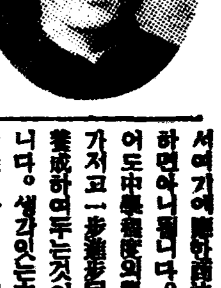
산·세바스찬市에
叛軍、入城을完了

【산·세바스찬十三日發同盟】西班牙叛軍은 前後數日에 亘한 包圍의 結果 十三日午前三時 無抵抗裡에 堂堂 산·세바스찬市에 入城을 完了하얏다 政府軍은 十二日夜부터 漸次 撤收를 開始하고 夜半에 至하야 西方八十키로의 要衝 빌바오市에 退却하엿다 뒤떠러진 一隊는 海路로 佛領에 逃走하엿는데 撤收에 當하야 政府軍은 放送局、電話交換局、中央電話局等의 重要建物을 破壞하고 道路를 爆破하야 叛軍追出에 多大한 障碍를 與하얏다 政府軍은 方今 빌바오市를 最後의 據點으로 防禦準備에 着手하엿는데 避難民이 殺到하야 빌바오市는 食糧難에 陷한 模樣이다 政府軍은 右翼의 人質 三千八百五十名을 收容하고잇는데 이 人質을 利用하야 叛軍에게 [illegible]을 加하야 戰局을 有利하게 解決할 意圖이라고 한다

西首都外交團
籠城코婦女子保護

【마드리드十三日發同盟】마드리드 駐在外交團首席 智利大使는 十三日 外交團을 代表하야 카바레로首相에게 面接하고 現在 마드리드、알카라市에 籠城中인 婦女子를 外交團의손으로 保護할것을 要求하얏는데 카바레로首相은 右要求를 受諾하고 마드리드大使에게 [illegible] 許可證을 與하엿다 [illegible] 避難施設의 許可를 [illegible] 十三日午後三時半 마드리드를 出發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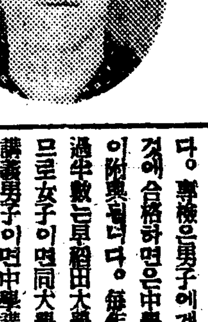
獨學相談
獨學者의質問에答하야



問 獨學으로果然充分한學力을엇을수잇을가、그리고獨學하는데는엇더한方法을取하는것이第一確實할가요。 (兵庫 三宅一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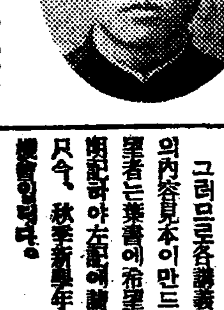
答 勿論어들수잇습니다。學校에서도落第者과優等生이잇는것과가티 힘쓰는사람이優等生이됩니다。여기힘쓰는精神이即獨學精神이요、要컨대정말學力은獨學精神을가지고배우는때에만 엇을수잇는것입니다。도리혀充分한學力을엇으려면은于先基礎學부터順序를밟아서綜合的으로배우는것이第一必要하고 [illegible] 그러므로獨學하는사람을爲하야만든講義錄으로배우는것이第一確實합니다。

서여기에簡明한答을行하지아니하면아니됩니다。[illegible] 中學程度의學力쯤은가지고一步進步된 [illegible] 業成하여두는것이 [illegible] 必要합니다。생각잇는主人은自己가講義錄을사서店員에게 [illegible]



問 講義錄에는어떠한種類가잇습니까 (熊本 早見健次)

答 普通學校만나와서獨學으로中學卒業의實力을엇을라는사람을爲해서는中學講義(前後期各一年修了學費月一圓)甲種商業學校卒業의實力을엇을라는사람은商業講義(一年半·月一圓)高等女學校의全課程을修學할녀는사람을爲하야서는高等女學講義(一年半·月一圓)電氣에關한基礎學을처음부터배우라는사람에게는電氣工學講義(一年半·月一圓)이잇고、엇던것이나모다模範中學校의課程에準하야小學卒業의讀書力만잇스면누구나읽을수잇도록씨여잇습니다。이外에專門學校程度의것으로政治經濟講義(一年半·月一圓)法律講義(前同)文學講義(前同)電氣工學講義(前同)의五冊種이잇습니다。엇던것이나다早稻田大學各學部의課程에準하야서누구에게나理解되도록明快히講述하여잇습니다。



問 商人에게는學問이必要치안타는사람이잇는데어떠합니까 (大阪 小林清治)

答 그것은크게잘못생각입니다。只今은 [illegible] 時代가아닙니다。[illegible] 同業者의競爭에 [illegible] 自己店의 [illegible] 손님의 [illegible] 要求를남보다빨리아러 [illegible]

問 獨學으로女學校卒業의資格을엇으랴면어떠하면조켓습니까 (東京 上田道子)

答 每年春秋二期에文部省이各地에서行하는專檢(專門學校入學者檢定試驗)을보면조습니다。專檢은男子에게도잇서서이것에合格하면은中學卒業의資格이附與됩니다。每年의合格者의過半數는早稻田大學의校外生이므로女子이면同大學의高等女學講義、男子이면中學講義에依해서準備하는것이第一조흘것입니다。商業講義로工夫하야도文部省에서行하는實檢(實業學校卒業檢定試驗)에合格하면은甲種商業學校卒業의資格이附與됩니다。

問 저는商業에다니는 [illegible] 九時까지도일하지안으면아니됩니다 그래도工夫할수잇슬는지요 (北海道 大原勇)

答 講義錄은獨學하는사람을爲하야알기쉬운文章으로表現되어잇스므로하로한時間이나두時間식工夫하면充分합니다 [illegible] 한時間만이라도빨리일어나고한時間만늦게잘것을作定하여주십시요。몇十萬이란獨學者의大部分은당신과가튼境遇에잇스면서그러나敢然이도工夫를繼續하고잇습니다。

그러므로各講義錄에는다各各의內容見本이만드러잇스니希望하는講義의名을明記하야左記에請求하십시요。一年間을努力하여주십시요。只今、秋季新學年이여서絶好의機會입니다。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三三 電話牛込三三四五

早稻田大學講義錄

乾溝에尺餘厚氷 凄然! 定界碑跡

二百二十年間입다물고잇는 ㉕ 土門江邊돌무덕이

李相昊記

올른편으로는 대각봉(大角峰)이, 왼편으로는 대련지봉(大臙脂峰)이 일홈은 봉오리향해에들건마는 민둥 민둥한 허어연등성이가 많은대공에 느리게 굵은 곡선(曲線)을 그리고 누엇을뿐이다. 생김생김이라든가 채리범절이 어대까지라도 평범한 산봉오리들과는 다르겟다는 고집이 한두가지아니다.

모라치는 눈바람을안고 속을 모래로된 등성이를 더듬그리며 올라간다. 새벽에떠날때 미리짐작햇든지라 가지고온 옷이란옷은 한자락도남기지안코 다껴닙엇다 말할것업시 겨울양복 속옷 쓰웨터! 총동원이다 『타올』두개로 목도리를하고나니 털목도리 방한모를 못가저온것이 못내 한될뿐이다. 이만큼단속을 햇것마는 남북그려올만치떨린다

○

대련지봉 기슭을 다도라와다 토문강(土門江)의 발원지가되는 골작에는 자부피되는 어름장이 만년을가도 누아볼운명을 못가진채 가로백여다 울목불록 엄은 어름바다이 팔월(八月)은고사하고 삼복(三伏)염열을 한목가저와도 안녹겟다는 거조로보인다.

마른골작이 두던으로는 돌무덕이가 약백간쯤으로 띄엄띄엄 노여 멀리 대각봉(大角峰)기슭을 부터서 다라낫다 이것이 국경으로 쪼개여노흔 표석무더이라고한다. 약에쓰랴해도 몰한뎡이 어기어려운 이어란에 돌도용하게 구해지마는 이산말랭이까지와서 금자옥을내고 법석을한 국성스러운 인간들의 성화도 졸연찬케보엿다.

돌무덕이를 따라서 두어마장 더가다닷는곳은 유명한 정계비(定界碑)자리.

약간 홍터이가진듯도 하지마는 얼핏보아 펀펀한곳에 아모것도 쓰이지안흔 나무말뚝한개가 박혀잇다.

여게가 칠변전까지도 『동위토문(東爲土門)』이란 애매한 문구로 이여변을두고 말성을부린 정계비가 섯든터로 지금부터 칠변전여름에 누구의 소위인지 모르나 그돌비는 뽑아버렷다고한다.

이 정계비내력은 지금으로부터 이백이십사변전 리조숙종(李朝肅宗) 삼십팔년 임진(壬辰)에 청(淸)나라 강희제(康熙帝)가 오랄총관(烏喇總管)목극등(穆克登)을 보내여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기로할때 우리편에서는 감계사(勘界使)로 박권(朴權)리선부(李善溥)가 군관(軍官)역관(譯官)여명을 데리고 목극등과함께 백두산으로향하고 올라오게되엿다 고한다.

삼수(三水)갑산(甲山)만하드라도 대여섯나지오든다음 귀양사리로나 갈곳으로알든 세월이든 파가는목숨을끈을고 어명(御命)이니 할수업시 백두산까지 올라간다는것은 저성길이나 다름업섯을것이다.

혀산진(虛山鎭)을 조금떠어선 그들은 아모리남여 사인교를타고 전배후배 시위를 밧고왓스나 하늘이안보이는 숲속을들며 머리끄치 주벽주벽해지고 발가락이 오구라드는판에 야심하안이 목극등은 『내일지이드르매 조선의대관들은 보교가업스면 실리거름도못것는다고하니 압흐로보고는고사하고 발바닥도 잘못부칠런지가닉엇스니 다음에 큰일을 저즐것이니 일측 도라갈이 어떠냐』고 위협적 공갈적 말을 햇다고한다.

이말을드른 『웃거리』 『발주머니』들은 엇지구나 조와라고 꽁문이를빼버리니 뒤따라온 군관역관몃몃이 가치갓다고한다.

한나라의 전권대사로 나라와 나라의 지경달과학마당에 빼가부서지고 살이허무러저도 버틔야마될 그판이건만 천고에씻지못할추태를 남긴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하지안흔일이라도머리를 들지못할노릇이다.

(사진은국경표적돌무덕이)

故土災民에게보내는 救護의捐金續到

大阪、京都、兵庫縣等地에서

찌는듯이 더웁던여름, 갈질나게 지리하든 장마, 무시무시하게도 불든바람도 칠천의사상자와 백만의리재민 그리고 빈궁한 우리사회의재산 일억오천만원을 빼아서가고는 마음이 시연한듯이 이제는 개엿나보다 그러나 천고마비의 가을날도 압날의 추위가 약속되여잇스니 이해에 한하야서는 어찌 조흔날세라하랴! 시간이 갈사록 늘어만가는것이 추위이다 주림에서 허덕이는 리재동포는 멀지안어추위에 부대기고야 말것이다. 이 구족애(救族愛)에 피끌는이때까지의 의연금품이 어찌적다하려마는 아즉도 그야말로 구우일모(九牛一毛)라할수박게업다 백만의인명을 구하는것이 그어찌 용이한 일이라! 본사에서는 아래와가티 멀리 일본내지각지에잇는 동포들에게서 긔탁(寄托)하여오는 돈을 바들때 그들의 정성에 다시금 감격하지안흘수업스며 그들의 동족애에 경탄할뿐이다。그들의 살림을 아는 우리로서는 이야말로 빈자의 일등(一燈)으로 그 지성(至誠)은 사람의 눈물을 자아내는바이다。

▲一金四十七圓也 京都市下京區 京都肥料會社 從業員一同
▲一金四十六圓十錢也 橫濱市中區打越三九 朝鮮敎會
▲一金參十圓十錢也 大阪市布施町 天道敎大阪宗理院
▲一金二十五圓八十錢也 京都市下京區東九條柳下町 在住朝鮮人有志一同
▲一金二十七圓五十錢也 尼崎市內鮮同愛會總本部
▲一金二十三圓四十錢也 大阪市港區三樋町在住朝鮮人一同
▲一金二十圓也 名古屋漢藥業組合員一同
▲一金三十三圓五十九錢 兵庫縣西宮市津門町內 平和組合
▲一金二十一圓五十錢 兵庫縣尼崎市東濱町四番地 日本電力株式會社朝鮮人一同
▲一金三十圓二十四錢 京都市東九條上殿田町四六番地 京東相助會事務所
▲一金二十九圓三十錢 兵庫縣川邊郡立花村三反田字濱三五二、三三五一 朝鮮人一同
▲一金二十六圓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 朝鮮人一同
▲一金二十五圓 東京市澁谷區親睦部 東京本部員一同
▲一金二十八圓四十五錢 大阪市西淀川區 在留朝鮮人一同
▲一金十三圓五十錢 大阪府堺市向陽町 在留朝鮮人一同

內外人의 同情金

本報仁川支局에續續寄托

【仁川】수천생명을 수마(水魔)에게빼아끼고 다행히 생명을유지한 삼남수해리재동포들의 집도 옷도 먹을것도업시 도로에방황하는 그정경은 동포애(同胞愛)는고사하고 인류애(人類愛)로의 동정의눈물을 금치못하는바이다 실로인천의사람들의 눈물겨운 구제금품이 본보인천지국을통하야 답지한다함은 계속보도되는바어니와 이번에 인천시외장의리(長意里)교회의 헌금륙원을 비롯하야 인천시내 룡리(龍里)에사는 정덕희(鄭德姬)양의 적고도동정렬이만흔 손수가저온 현금오십전과 인천공립심상고등소학교아동들의 푼푼전전이모흔 삼십사원사십전과 가정생활에 넉넉지도못한 인천류정(柳町)동아양조장리희영(李熙榮)씨의 긔탁한현금오십원과 인천용우친목회(傭友親睦會)의십오원은 더욱감격한동정심이안케하엿다 그구제금품과씨명은 아래와가트다

▲仁川市外長意里敎會六圓 ▲同仁意學院三圓 ▲仁川市內龍里張小淡二十圓 ▲仁友親睦會五圓 ▲龍岡町鄭德姬五十錢 ▲金谷里鄭銘一圓 ▲土地家屋紹介組合十圓 ▲仁川公立尋常高等小學校三十四圓三十錢 ▲仁川傭友親睦會十五圓 ▲柳町東亞釀造場五十圓 ▲朝鮮人魚商組合十圓

가마니를짜서 義金을辦出

奇特한學生들의至誠

中山太一氏도二百圓

지방에서 십사일 본사에 긔탁하여온 수해의연금품은 다음과가튼데 그중에는 학생들이 가마니를 짜서 판돈을 가저오는 것도 잇고 일본내지인으로 조직된 대판실업조합련합회(大阪實業組合聯合會)사여서칠라장 중산태일(中山太一)씨의 의연등이잇다

▲現金 四十二圓六錢 高敞高等普通學校生徒一同
▲現金 四圓二十錢 京畿道水原郡 烏山公立農業實修學校生徒一同
▲現金 六圓五十錢 漁大津佛敎會
▲現金 貳百圓 大阪實業家産業聯盟團長 中山太一氏

滿洲國各地에서도 水害義捐金遝至

北滿大洪水때의恩惠바든것을 이機會에갑는다는눈물겨운片紙

이번홍수에 대하여는 각방면으로부터 동정이만히일어나는데 만주국 방면에서도 이참상을듯고신경(新京)길림(吉林)영구(營口)미(?)의타합이빈 정가툰(鄭家屯)등지에잇는 사람들로부터 의연금이 련일총독부이사과로 송부되여오는터로 일측이 사변당시 홍은북만대홍수때에 그들이 바든 은혜를갑는다는 의연에대하야 은혜를갑는다는눈물겨운편지까지 겹처보내는사람이만흔현상이다

結實의가을

【昨日 淸凉里에서】

上海를中心舞臺로 猛血團組織活動

前駐中公使有吉氏狙擊事件의 關係者六名今日送局

【海州支局特電】국제도시 상해(上海)를 중심무대로하고 밀정두어명을 암살한다음 전주중공사(前駐中有吉公使)저격사건에 직접으로 관계한 황해도 안악(安岳)태생 오면직(吳冕稙)을 두목으로한 『맹혈단』(猛血團) 사건관계자 한도원(韓道源) 류계석(柳啓錫)김승은(金勝恩)안병근(安炳根)등여섯명은 두어번에 난호아 상해로부터 황해도 경찰부로 압송된이래 고등과의 죽환(竹丸)경부의 손으로 엄중히 문초를 밧고잇든중 문초가 끗남과함께 보름날 사천장이나 되는 방대한서류와 함께 해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기게되엿다。

茂山郡霜降

【茂山】음산하게 사리는 비뒤에 냉해(冷害)나잇지나안홀가하고 일반이 우려하든중 지난십일부터 갑작이 온도가 사리며 십일일아침에는 마츰내 무산군(茂山郡)일대에 서리가 내리고 말엇다 무산군내는 그리 농작물에 피해될 정도는아니나 놉흔지대는 냉해가잇슬것하다는데 작년보다 반삭이상 약십륙일이 일이라한다

外事課新設候補地 明年엔慶南、平北

"四十年올림픽"情勢에備코자 漸次各道에設置할方針

최근의 국제정세와 밀정암약을따라 경무국에서는 오는시월부터 외사경찰(外事警察)과 고등경찰의 확충을 도모하야 경긔 함북량도에 외사과(外事課)를신설하는동시에 각도경찰부외사과의 충실을 긔하기로 되엿는바 외사경찰망의 확충강화는 더욱긴요해짐으로 도경찰부의 외사과신설은 단지 경긔、함북뿐으로서는 충분타고할수업는바 특히 지난칠일부터 구일까지에내무성에서열린 전국외사과특고과장회의에 출석한 경무국보안과긔긔(木崎)사무관의 보고에의하면 오는 일천구백사십년의 『올림픽』동경대회에는 상당히 외국인도 입국하게되고 그수효이되여 매국적행위를 하는자가업다고도할수업다고함으로 이때에 아주나머지 각도에 대하야도 점차외사과를 신설할 방침미테 위선명년도에는 경남、평북량도를후보지로하야 계획을 진행식히고그실현을 긔하기로 되엿다

巴里國立劇場火災

【파리十三日發同盟】 파리시민들의 자랑인 국립오페라극장은 십삼일오전한시쯤 안에서부터불이나서 무대와및 관중석의 태반이 타버렷다 불은새벽여헤일으러 겨우진화되엿는데 손해는 수백만『프란』에 달할모양이다

朝鮮運計의會計員 萬餘圓橫領逃走

帳簿를흐려가며酒色에消費

부내본정서(本町署) 사법계에서는 십사일오후부터 갑작이긴장되여 가운데에 본적울산(蔚山)에 두고 길야정(吉野町)백오번지에 살면서 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일번지 조선운송계산보증회사(朝鮮運送計算保證會社)회계계에 잇는 구보산성(久保山省)이라는사람을잡고저 전조선각경찰서로 수배를하는한편 맹렬한활동을시작햇다 구보산성은 작년팔월부터 그회사에근무하여 날에나려오든터인데 그동안착실하게 일을보아오다가 금년정월부터 주색에팀흥되여 자긔가현금출납하는것을기화로 한번에몃백원 혹은몃천원식 장부를흐려가면서 오늘날까지 일만수천원을 횡령소비해오다가 작금에와서 이일이탄로될것을 눈치채이고는 어데로 종적을감추어바린것이다 회사당국에서는 그가여러날동안 병을칭탁하고 결근하는데 수상쩍게여기고 장부를검사한결과 마침내 이가튼사실이판명되여 비로소 경찰에알리게 된것이라한다

少年竊盜

충남천안(忠南天安)출생으로 일정한주소가업시 도라단기는 김재순(金在順)(一五)은 십사일오전아홉시삼십분쯤에 부내의주통(義州通)이정목 일백팔십사번지 원두경(元斗慶)방에드러가서 주인의 호주머니에 들엇든 돈팔원을 훔처가지고 정거장부근 장작시장으로 도주하다가 서대문서원에게 붓들렷다

朝鮮蹴球選拔軍

上海·香港에遠征計畫

十一月부터合宿練習

朝鮮蹴球協會에서는 蹴球競技의 對外進出을 圖謀하기爲하야 明年一月上旬頃에 中國體育協進會의 招聘을바더 上海、香港等地로 遠征할豫定이라는데 朝鮮遠征軍의 編成方法에 關하야서는 朝鮮蹴球協會에서 不遠間理事會를 召集하야 具體案을 決定한後 全朝鮮을 網羅한 最强팀을 組織할터이라한다 이리하야 十一月부터 冬期合宿練習을 行하야 實力向上에 注力하기로 되엿는데 詳細는 追後發表할터이라하며 이번遠征에對한 計劃은 伯林올림픽大會를 觀察하고도라온 蹴協理事玄正柱氏와 中國올림픽蹴球代表팀의 幹部사이에 成立된計畫案이라한다 아잇서 이날의盛況을豫期케한다

延專主催의 中等陸上

八個校參加

朝鮮中等校陸上競技界의 金字塔! 延禧專門學校主催의 第十四回全朝鮮中等學校對抗陸上競技大會는 來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延專競技場에서 擧行할터인데 申請期日인 昨十四日까지에는前年度覇者 養正高普를 비롯하야開城松都高普、中央高普、培材高普、徽文高普、第一高普、第二高普、普成高普等의 八個校가 參加하

實業庭球리그第二日

總府、殖銀各勝

京城實業庭球聯盟主催의 秋期리ー그第二日은 十四日午後五時부터 朝銀「코ー트」에서 總督府對商銀戰이 殖銀「코ー트」에서府廳對殖銀戰이 各各열린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總督府軍과殖銀軍이 各勝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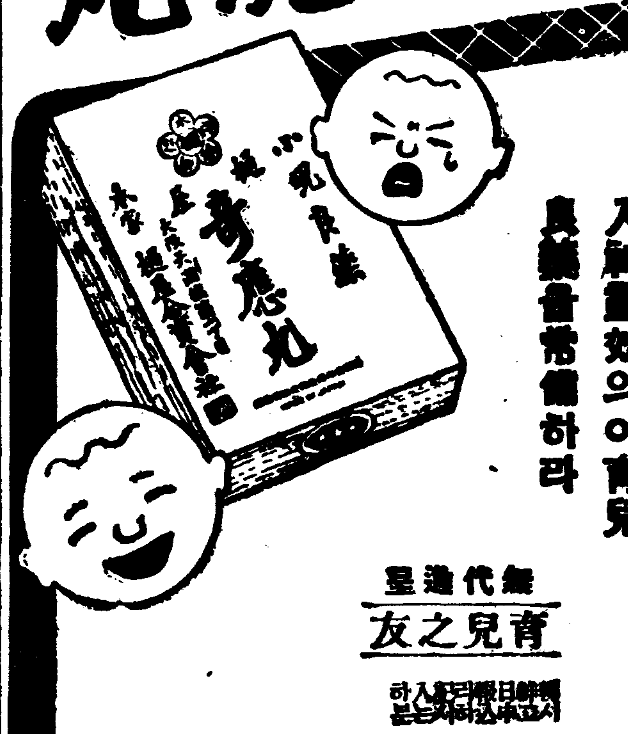
【府廳】敗 【殖銀】勝

(第一라운드)
×(張南星 申崗都)3…4(藤原 諸誠銘)○
○(河東植 赤松)4…2(殿寶龍 神田)×
(第二라운드)
×(洪承杰 李園基)1…4(崔永生 李鍾鎬)○
×(河東植 赤松)3…4(藤原 諸誠銘)○
不戰組(崔永生 李鍾鎬)

【總府】勝 【商銀】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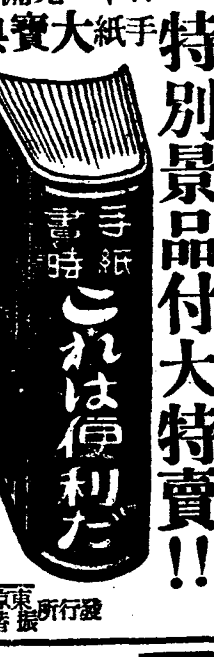
(第一라운드)
×(張吉福 柳太龍)1…4(李正來 加戶)○
○(楚熊御 李應麟)4…1(金時浩 諸世新)×
×(車應烈 金鍾觀)1…4(沈準燮 河村)○
(第二라운드)
○(熊野御 李應麟)4…0(李正東 加戶)×
(第三라운드)
○(熊野御 李應麟)4…0(沈準燮 河村)×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良藥一粒
瀕死兒는蘇生
病兒는全快
虛弱兒는健康
入神靈效의이育兒
良藥을常備하라
無代進呈 育兒之友
主効 …
本舖 大阪天滿橋 樋屋合資會社
H.K.5



九月十五日부터開店
時代의寵兒가誕生
各國紳士服地陳列販賣
여러분의推奬에依하야羅紗屋에서
直接需要者여러분께
京城府鍾路一丁目
各國羅紗取扱店
東洋羅紗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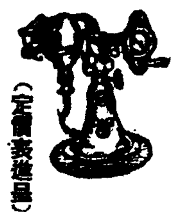
特製 분백정수
白粉바를·白粉얼룩·여드름·땀띠·햇볕끄친데·화장후에는高尙明朗·수십분터히거벗
定價 五〇錢

日本一完備 手紙大寶典
便紙라면무엇이나다안다
特別景品付大特賣!!


組合式과新案辭典式의長點을取入하야논新時代에適合한新講義를한無比의名著
發行所 東京・麴町九段三ノ二 振替東京五九九四四 積文堂本店
大特價 壹圓四拾錢
大景品
無代進呈 實物縮寫

自宅で儲かる 副業本業
◎專屬製造者募集
가장安全確實히된다
マルハマ紙工業所

淋疾 蔘茸五淋錠
朝鮮靈藥研究所

리―도―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과、옥수수가八升의菓子가된다
(定價表進呈) 釜山府寶水町一丁目 城野製作所


商標 千
고초가루 都賣
金千壽商店製粉部
時價表請求하시면送呈하겟습니다

小型추럭이 通行人을襲擊

【仁川】인천부신정(仁川府新町) 심일번지 김희영(金熙榮)은 (京一三三○號)소형추럭에 모래를 가득싣고 시내로 급행하다가 항정(仁川府北城町)근방에서 부천군 북도면선도리(富川郡北島面仙島里) 거인영(金仁榮)이가 통행하고잇는것을 피하랴다가 행인이 황급히 추럭에 달려들어 중상을 입게되어 방금도립병원(道立病院)에서 입원치료중이라한다

町會도團體도個人도 義行은綿綿不熄

衣服現金은勿論이요 雜貨까지도出捐

災地를再襲하는"同情"의洪水

두번또는 세번식 엄습한 수재로말미암아 주접할집을 떠나려보내고 먹을것입을것을 일흐며 부모처자 형제등가족을여히한전조선 백만리재민은 아프로 닥처오는 추위를앞에두고 어데케그들의생활을계속할가하는 긴급한문제에부닥치게되야 흑은 리주민에참가하야 북조선지방으로 또는 친척과 지긔를따라 정든러 살든고향을 등지고 살곳을차저 이곳저곳으로 류리하는 리재민이날마다 끄님이업다는것은리재지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다 류리하는가족은 반석허무러진집을 다시일으키고 그곳에 그대로기동뿌리를 박으려는 리재민들도 너머나 물과바람의피해가만혓든관계로도저히 자긔들힘으로만은 일어날수업서사회일반의따뜻한이웃사랑을바라고 고대함이 만흔현상이다 이러한참상과 재해에따라 비저내지는 여러가지 비극은 시간이지나고 날이거듭될사록 더욱심해지고 또이에따라 사회의동정도 그만큼 도타워저서 해내해외로부터 리재민을구하자 그들에게 따뜻한 밥한그릇, 옷한가지라도 도와주자는부르지즘과 열성미테 눈물겨운물품을 리재민에게 보내달라고본사에 속속그탁하는중으로 십삼일과 십사량일동안 경성시내에서만 본사로 구제물품을 그탁한단체와 개인씨명을 들어보면 다음과갓다

★…봉익정(鳳翼町)정회에서는 현금 륙십원륙십오전 외에옷 일천사백석십일곱가지 쌀두말일곱되 양말열일곱켜레에 신한켜레를 전해와잇고

★…체부정(體府町)정회에서는 현금 륙십일원칠십이전, 쌀한말 한되, 옷일천삼백열가지와 약품쉬흔가지를 보내와잇고

☆…신공덕정(新孔德町)제일구정회에서는 현금 이십륙원오십구전에 옷칠백마흔네가지를 기탁해와잇다.

☆…토정정(土亭町)정회에서는 현금이십일원 오십일전을 탁송해와잇고

★…수표정(水標町)정회에서는 현금 백사십오원사십전 옷이백열가지 무명한필에·쌀한되를 의뢰해왓고.

★…종로륙정목(鐘路六丁目)정회에서는 현금백십이원오십전에 옷팔백예순한가지를 탁송해왓고.

★…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 정회와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서대문정일정목분구회에서는 현금백팔십오원사십전을 의뢰해왓고.

★…련지정(蓮池町)정회에서는 현금십사원 옷오백설흔나섯가지 쌀두말을 보내왓고.

★…내자정(內資町)정회에서는 금오십오원칠십전을현금과탁하여왓고.

★…락원정(樂園町)정회에서는현금이백사십사원십칠전과옷을합할 천이백예순여섯가지를 전해와잇고.

★…명륜정(明倫町)정회와애국부인회 명륜정 분구회에서는 현금구십오원오십오전 옷 일천사백스물한가지 쌀여섯되와 신혼켜레를 의뢰해왓고.

★…광희정(光熙町)이정목정회에서는 현금백사원륙십전과 옷 이백예순가지를 전달해왓고

★…신공덕정제이구정회에서는 옷 일천예순일곱가지와 어린이두명이륙전과 팔전이 각각 드러잇는 벙어리두개를 보내왓고

○돈암정(敦岩町)정회에서는현금륙십구원륙전 옷 오백설흔아홉가지와 쌀두말아홉되한홉을각각 전해왓다

一、團體

▲三十一圓二十錢 府內昭成普通學校生徒及職員一同 ▲衣類一百九十點 府內竹添町東洋宣敎會 阿峴聖潔敎會▲五十一圓과 衣類一百十一點及敎科書五十九卷 京城女子商業學校 ▲衣類百四點 府內宗橋敎會女宣敎會會員一同 ▲六圓八十五錢 堅志町女子講習所學生一同▲二十圓 京城車夫協會 ▲三十二圓三十錢 府內蓬萊町一丁目朝鮮고무工業所社員一同▲衣類百九十點 府內竹添町 東洋宣敎會阿峴聖潔敎會

一、個人

▲五十圓及衣類二百四十六點府內橋南町 華山學校主 鄭應鉉 ▲百圓 府內崇仁町 朴泳孝 ▲三圓 府內 貫鐵町二丁目 崔順七▲百圓 府內武橋町一三 李相玉

人事

▲小倉喜平氏(仁川貿易館長)赴任人事次本報仁川支局來訪

紅裙에同情淚痕

三百五十圓募捐寄托

◇市內鍾路券番이率先活動

이번 미증유의 참담한대수재에 휩쓸려서 긔한의 구렁텅이에서 부르짓는울음소리는 얼마나 처량한것인지 구하자는 소리는 빈부와 계급과 원근을막론하고 전조선방방곡곡에서 울려오고잇는데 특히시내에잇는 각권번(券番)에서도 얼마간의돈을추렴해내자는 긔운이 팽창하야 십사일에는 시내청진정(淸進町)에 잇는 종로권번(鍾路券番)에서그 첫소리를지르서 이백여명의 기생들의 손으로 울어난의연금 삼백사십칠원오십전과 의복팔십오점을 그권번 김지배인과 사옥(○玉)윤련홍(尹蓮紅)세 대표자가 본사로 기탁하여왓다

(사진은종로권번 대표자들)

꽃바다의鍾路署

四千餘女給妓生點檢

接客人의健康診斷을開始

시내종로서 위생계에서는십사일부터 한달동안 관내에잇는접객인(接客人) 사천칠백 오십여명의건강진단을 시작하엿는데십사일에는 화양식조합(和洋食組合)에 소속되는 녀급기생 보이등이렬을짓도록 모여들어진단을바닷는데 그중에는 폐결핵(肺結核)환자도 수명이잇섯는바하여간 종로서는 때아닌꽃바다를 이루엇다

敎育勅語記念式

경성부교육회에서는 조선에 교육칙어(敎育勅語)가내리신지 이십오주년이되므로 오는십월 삼십일의 그긔념일에 성대한 긔념식을 거행하고 다음과가티 사업을할터이라한다

一、會員一同 朝鮮神宮參拜(當日午前十一時半)
二、皇居遙拜(朝鮮神宮에서)
三、記念式擧行(當日午後二時府民館에서)
四、記念講演(式後)
五、祝宴(講演後)
六、府內各中、初等學校聯合記念學藝會開催(十月二十五日府民館에서)

仁川貿易館落成式

【仁川】무역액이억원을 돌파하야 조선의굴지하는 무역항의하나인 인천은 작년도 축하식등을 성대히 거행하얏지마는 인천부당국에서는 해내 해외를막론하고 무역조장과 생산품선전의 목적으로 금년봄부터 해안정(海岸町)전 곡검(穀檢)자리에 무역관을 설치코자 개축중이든바 그완성을보게되야 오는십구일 오후삼시부터 동관에서 락성식을 성대히 거행하리라한다

長霖後仁川에 豫防注射施行

【仁川】소위이천관측소창설이래에처음당하야다한것은 임이일반이주지하는바와갓거니와 이와한가지 불순한일기로인하야 각종전염병이창궐하고잇스다 더욱이인천은 경성의관문이요 동시중국항로의관문이다 인천의전염병은곧 조선토의안위를념려하는것임으로인천서홍(洪)위생주임은 장마중에곤란을무릅쓰고 방역에로력하야 별반큰지장이업시경과하얏스나 장마를지난끄치라 지난십일 인천시내시외전부에호구조사를한결과 장질부사두명 적리(赤痢)두명을발견케되야 맛참내전시를통하야 예방주사를시행키로하얏다는대 일반부민도이에응하기를바란다는바 시일장소는 다음과갓다한다

	場所	區域
九月十五日	萬石町 天道敎堂	新花水里一圓
同十六日	第二公普校	松林 松峴一圓
同十七日	檢疫所	主幹、水上下仁川派出所管內
同十八日	永化普校	外里 宮町 上仁川派出所管內

(每日午前九時부터 午後四時까지)

兩雄嘗膽의復讐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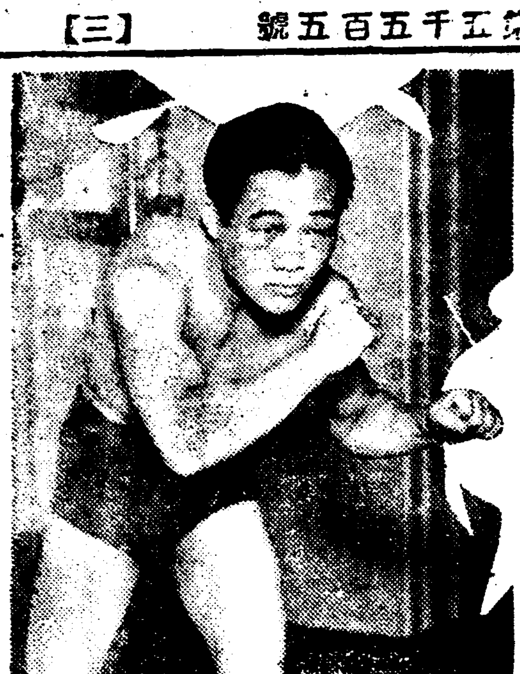
雪辱?·連敗의斷末陣

常勝拳雄宋基完君과對戰

廿五日東拳主催、本社後援

京城運動場特設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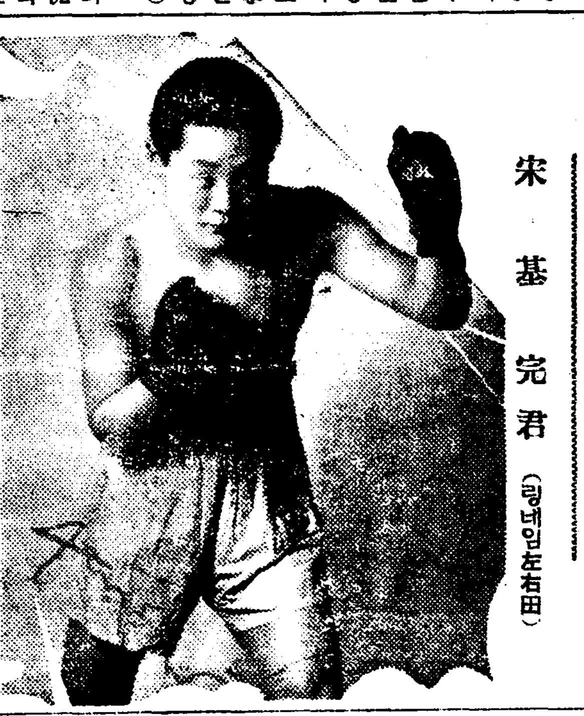
世界的拳豪徐廷權君 乾坤一擲·復讎試合



徐廷權君

상냉(爽冷)한 스포-츠의 가을을마지하야 이십오일밤 일곱시부터 훈련원두(訓練原頭) 경성운동장에서동양권투회 후원회주최와 본사 후원 아래 공전의 권투호화전(拳鬪豪華戰)이 열리게 되엿스니 이는 바로 조선이나은 세계적권호(世界的拳豪)서정권(徐廷權)(上)군과 일즉이 서군을 판정으로이긴 송기완(宋基完)(下)(링네임左右田)군과의 복수전(復讐戰)이다 그뿐만이랴 련전련승하야 끗칠바를 모르는 무적강권 심상욱(沈相昱)군은 상해의 노란화살 박제건(朴濟健)군을 물리치고 오직 강적을 기다리든터에 일본내지에서 그용명을 휘날리며피스톤호구(堀口)선수와 무승부의 패적을 남긴 김기호(金基鎬)(링네임眞田)군과의 대전이야말로 만천하권투팬의 가슴을 조리게할 따봉·메인에벤트임에 틀림이업다.

권투의나라 미국에 건너간지 삼년만에 세계밴탐급의 일류와 거이대전하야 어든바 세계제위의 영예를 안고 귀국한 서정권군은 제일전에 비롱린의 강호『크리스·피네다』를 비롯하야 관제(關齊)좌우전(左右田)(宋基完)군등에게 의외로 판정패를 당하고마럿다 그러나 군은『럭슈·쵸』를 경성에마저 유유히 물리친후 이래 향리에서 은인자중(隱忍自重)하야 오직지난날의 왕좌를 부활하는 분긔의 일전을 뜨하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고 잇든것이다 서군이 원한의화살을 겨눈것은 송기완(宋基完)(左右田)군이니 송군은경성계동정(京城桂洞町)출생으로 어려서부터명고옥(名古屋)에가서 그곳해동상업학교를마치고 이래직업권투선수로서 활약하며 현재일본권투계의 혹성적(惑星的)존재이다 송군의거러온 발자최를 살펴보아 군의실력이 어떠하다는것을 추측할수잇겟거니와 이상의 두대진은 실로우리권투계에잇서서 전무후무의 대전이라 벌서부터선풍적(旋風的)인기를 모호고잇다



宋基完君(링네임左右田)

宋君의驚異的存在 卅三戰에一敗

五回無勝負의快績

세계적권호 서정권(徐廷權)군의 만천하팬이 알고 잇는바이지만 전적을 이제루허기재치안허도 서군의상대자 송군의 전적을아직도 반도팬에게 알녀지지안흔관게로 이에 지금까지의 전적을 소개하면 다음과가티 삼십삼회대전에 단한번판정으로 패하엿슬뿐이고 다섯번은무승부 련전련승의 경이적기록을 남기엇다

戶崎	四回戰	判定勝
久保	六回戰	判定勝
石川	六回戰	判定勝
野網	六回戰	KO勝
戶崎	六回戰	TKO勝
秋本	四回戰	無勝負
北村	六回戰	判定勝
中川	四回戰	無勝負
長谷川	六回戰	無勝負
淺川	六回戰	無勝負
北村	六回戰	無勝負
久富	四回戰	判定勝
菊地	四回戰	判定勝
高見	六回戰	判定敗
高橋	八回戰	判定勝
山田	六回戰	KO勝
吉田	六回戰	判定勝
西田	六回戰	判定勝
梅野	六回戰	判定勝
相川	六回戰	判定勝
佐竹	六回戰	判定勝
秋本	六回戰	判定勝
佐竹	六回戰	判定勝
北村	六回戰	判定勝
佐竹	八回戰	判定勝
植西	六回戰	KO勝

金基鎬君(링네임眞田)

▲마려이(馬來半島)遠征時

엘·엣·융(馬來半島후라이級選手權者) 十回戰中第五라운드KO勝

자아라지(同빠탐級選手權者) 十回戰中第七라운드TKO勝

徐廷權 六回戰 判決勝

林保永 六回戰 KO勝

조·베랄타 八回戰 三回連勝

沈相旦君

全仁川蹴球大會 松蹴軍優勝

【仁川】仁川體育會主催의 全仁川蹴球大會는 豫定과가티去十二十三兩日間 桃山球場에서擧行하엿는바 觀衆은無慮數千名에達하야 大盛況裡에 終了하얏다는대 優勝의月桂冠은 松林蹴球團이占領하게되엿는대 이로서 "피업" 全仁川軍을 組織케되리라는대 戰績은다음과갓다

【第一回戰】

勇蹴A 一―一 仁商俱
松林 四―○ 勇蹴B
仁通 七―○ 新龍
仁港 不戰

【準決勝戰】

松林 二―○ 勇蹴A
仁港 二―○ 仁通

【決勝戰】

松林 三―一 仁港

(寫眞은 優勝한 松林蹴球團)

學生籠球大會役員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十二回全朝鮮學生籠球大會는 來十六日부터四日間(每日午後二時競技開始)鍾路靑年會後庭코-트에서 擧行한다함은 既報한바어니와 同大會任員은 다음과가티決定되엿다

▲會長=尹致昊▲副會長=具滋玉▲委員長=李正鎬▲本部委員=玄東完、金圭冕、徐相天、呂運弘、崔在煥、李丙三、金應集、玄正柱、桂炳鎬、張權 ▲審判委員=潘河斗、田鶴鎭、金振秀、李惠濬、林東洙、金應鎬、李文鎬、安台慶、丁相允、孫禧俊、張權、崔潤夏 ▲記錄委員=李建春 金炳德 朴大熙 南奎興 金亨泰 各新聞社運動部記者 ▲計時委員=金明德 金龍九 金德鎭 李正相 ▲接待委員=張錫敎 李性宰 李基白 黃泳洙

◇◇今日의運動◇◇

▲庭球=秋期實業團리-그第三日 午後五時 鐵道對專賣(朝銀코-트) 朝銀對遞信(殖銀코-트)

▲野球=秋期實業團리-그第三日 午後四時 京電對京城府廳 京城球場

▲럭비=秋期리-그第九日 鐵道對城大(午後四時) 培材對龍中(午後五時) 龍山新球場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一○○、○○ 天道敎中央敎會(昨日의天理敎中央敎會라함은誤植이기訂正함)▲五、○○○、○○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一、○○○、○○野口遵▲四九、六八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職員一同▲一五、二九咸北雄基警察署幹事有近恒次(雄基警察署援)(但十五圓五十七錢中送料二十八錢을除)▲一、○○○、○○小林鑛業株式會社京城府明治町▲三○、○○北海道留萌郡大野村카-루、레이몬▲三五、五五名古屋市中區愛國靑年團一同 內譯 五錢 許且成 南鎭守 一○錢 李鍾泰 且甲伊 申九敎 金炳允 李命述 申永秀 李任壽 李閏鎬 安孝淑 金五律 金敬鉉 郭洙洙 文又守 朴龍安 錦点守 安順祚 安永旭 許安中 緖付相 緖鴻奎 一五錢 鄭虎龍 李相華 尹大變 具又洪 金洙龍 安敬道 金希伯 伊藤 金鋼順 金武伯 緖鳳伊 金俊伊 緖珙容 二○錢 兪必元 朴岩回 李周京 李旭榮 沈今性 朴斗文 金炳鋼 黃用三 李鋼雨 崔錦祚 申永奎 朴点資 鄭三用 薛秉弼 金學洙 李洪世 李且龍 南萬友 三○錢 黃錫祚 李起洪 朴鍾旋 權寧善 緖允說 房德萬 李任七 緖衛伊 李性萬 鄭國鎭 李斗鎬 五○錢 李起鳳 朴尙石 朴鳳甲 黃華鎬 南鋼熙 朴閏哲 金義炳 朴在鉉 林萬之 安商熙 吳章煥 金正石 金次出 李鈞來 金炳壽 李章玉 崔達坤 韓鋼旭 金道鎭 金又出 梁國烈 薛鎭權 安德商 李泰周 緖月石 緖鳳朝 安乙秀 張京鋒 安用大 金鋼壽 一圓 協同組合 花山梅吉 朴仁善 南点生 金鳳守 吳周煥 金谷大 李敎仁 金榮泰 ▲一○、○○千葉縣船橋町自動車和會一同▲三二、二○神奈川縣高座郡明進會一同▲一、九五龍仁專賣局販賣所員一同(但二圓中送料五錢을除)▲一、二○京城地方專賣局咸興出張所咸南販賣所一同▲二○、○○三重縣度會郡濱鄉村中野富藏▲二○○、○○東京市方面委員聯盟▲一八二、七五李王職職員一同▲一、四○海川專賣局販賣所職員一同▲二五、七○朝鮮貯蓄銀行咸興支店職員一同▲二○、三○同上光州支店職員一同

九月十一日現在累計 八二、六一八、九六

補材藥水 EBISU FUKUHOO
解毒、身體强壯、神經衰弱、半身不隨關節痛 其他强壯劑
에비수疥瘡膏 金五十錢
에비수補材膏 金五十錢
에비수金鷄納 金一圓 二圓
性病良藥 비수사로-루
淋病藥 超越淋藥 ¥5.00
痔病良藥 痔疾劑 五○錢
▲藥品注文할時는(반다시) 釜山府本町五丁目 振替釜山二二三四番
에비수藥院 EBISU
▲僞造藥에注意! 이러고써서、편지하여주시요
丸藥、錠劑를만병약수라하고販賣하는者가잇소 本藥、만병약수가眞正品

●朝鮮唯一의
KODERA 醫學博士 推奬
萬病藥水
藥効顯著 與論證明

走行實費の最少な大衆車フォードV-8

참으로自動車의經濟를測定함에는다음公式으로
走行實費를算出치안허서는아니됩니다

(最初の購入費 + 金利 + 維持費 + 運轉費 − 下取値段) ÷ 走行哩數 = 哩當りの走行實費

フォードV−8의走行實費는上記의計算에依하야모든大衆車中에서가장少額이므로營業用으로나自家用으로나가장適當한經濟車입니다

タクシーはフォードV8を御選び下さい

他車보다 넓고 氣分이조흔車室
센터-보이스式快適한氣分조흔
全鋼鐵의超安全車體
V型8氣筩엔진의强大한出力
急停車가도는機械式超安全부레-기

Ford

フォード特約販賣店
朝鮮鐵道株式會社自動車部營業所 釜山府榮町一ノ一
楠本商店 京城府若草町大通
平南自動車商會 平壤府濱町五
咸鏡モーター商會 咸興府錦町一三六
丸大商會 全州府本町一丁目
イトウ商會 淸津府彌生町六

本社接受水害救濟品 (九月十四日現在)

物品合計 七萬七千五百八十六點
白米合計 十俵九斗六升七合

水標町町會
衣類 二二〇點
白米 一升五合

東洋手袋工場
衣類 一二三點

佛敎會
衣類 二〇〇點

本社小井里支局經由
物品 八一點
麥七斗二升五合

蓮池町町會
衣類 五三五點
白米 二斗

本社仁川支局經由
衣類 二二六八點
米 五升

鍾路六丁目町會
衣類 八六二點

體府町町會
衣類 一三一〇點
白米 一斗一升
藥 五〇點

城北町町會
衣類 九二五點
白米 五升九合

本社永登浦支局經由
衣類 二一〇三點
白米 一升五合
敎科書 十六冊

楊平町町會

愛國生命京城出張所
衣類 七六點

昌信町町會
衣類 三〇四九點
白米 二俵
藥品 四〇包

黃昏 (178)
韓雪野 作
安夕影 畫

교차선(交叉線)(二)

경재는 지금도 잊다를 려순을 추억하지 안는것은 아니엇엇스나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안엇다。모든일에 기쁜 집착이 업는것가티 려순에게 대한 정서도 살시에 왓다가 살시에 가버리는것이엇다。

그러나 오늘 우연히 려순을 만나고보니 가슴은 야릇하게뛰설네기 시작하엿다。

그때부터 롤리에 어그레진 삼각관계를 비저내든 그삼각지대에 기약없이 다시 등장한듯한 느낌이 나며 예후억이 종처스자리가 움지겨나고 애욕의불길이 소리업시 타올르는것이엇다。

그것은 모든불과 통작과 표정을 초월한 순간이엇다。다만 한고치만한 맘의 불빗 속에서 옛날의 자기와 옛날의 애인을 발견하는 행복되고도 불행한순간이기도 하엿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인사가 필한다음 청춘의 잠깐사이가 지나가고、뒤미처 무슨말을 하고십흔 충동에 햇스나 경재는그 말을 얼른 생각하지못하고 잇섯다。

「여보게 이리 좀 오게」

사장이 이러케 말하는것도 못들은척하고 경재는 그대로 려순의 아페 서잇섯다。그러다가 사장이 다시、

「그러지 안허도 자네와 졸상론할 일이 잇든차인데 마츰 잘됏네」

하고 말할때에 경재는 그만 려순을 노치는 기회가 오는것갓해서 사장은 보지도 안코、

「웨 그러케 만나뵐수 업읍니까? 집으로 좀 놀라오십시요그려」

하고 위정 심상한 낫츠로 려순에게 말하엿다。

「패니 밧비서 그러케 됏습니다……택내는 모다 건녕하십니까?」

「네 별고 업습니다」

경재는 이러케 대답하며 문득、오래간만에 만나는 그와의 사이에 밧귀여지는 문답으로서는 너무나 평범한 세간사로할이흐르는 서글픔을 깨달앗다。그것은 커다란 괴롬보다도 더 견듸기 어려운 가냘핀 괴롬이엇다。

「그래 그새 공장、자미 어때십니까?」

「그저 그럿습니다」

려순은 경재의 물음에 대하야 무심히 이러케 대답하다가 별안간 고처 생각하며

「인제 겨우 [illegible] 엇습니다만」

하고 약을 우슴을 지엇다。

「여기 계심며 불다 어떠습니까?」

「외려 낫습니다。첫째 바빠서 일에만 열중하게되니까 정신이 좋읍니다고 할런지요」

「하하、그러실테지요」

「그래고 동무들이 만아서 세월 가는줄은 모르겟는데 집에 돌아가면 좀이 어떠케 고달흔지……」

「암、그럿지요……그러면 공부에도……?」

「공부야 본래부터 안하는거지만……둔한 머리로 못배것을이번은 육신(肉身)으로서나 배가하고……호호호……」

「암、외려 그게 낫겟지요」

하고 경재도 부지중 따라우섯다。

그러나 엇전지 말은 우숨수업섯다。

려순이가 공장으로 들어간후에 생활이나 맘이 변하엿다는것보다도 힘써 지금、자기의아패서 아주 딴사람가티 변해진체를 꾸미려하고 또 그생활을 무슨 대단한 의의를 가진것으로 자랑하듯이 말하는것이 경재의 눈에는 부자연하게도 또는 약간 아니꼽게도 뵈엿다。그것은 자기와의 거리를 멀리하랴는 어떤자존심에서 나오는행동인것가티도 뵈엿다。

대체 공장으로 가면 모다들 이러케 변해지는 법인가?

그러지안코는 보람잇는 삶과의 의잇는 일을 할수업는것인가?

꾸미고 과장함이 업시 놀라운 일을 하는사람이 참말 위대한 인간이 아닐가?

경재는 순간、이러케 생각하엿다。그러며 그는 형철의 일까지를 련상하엿다。

형철이도 그리로 들어간후로는 한번도 경재를 차자온 일이 업다。직업을 구할때에는그러케 섯가시게 차자오든것이、요새는 통 만나볼수도 업다。

려순의로 말하더라도、자기가 위정 차자가고、편지해주고、제히망대로 주선까지해주엇는데그리한후로는 얼굴한번 내미는일도 업섯다。

그러나 경재는 지금 이자리에서도 구태여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라는것은 아니엇다。

다만 그들의 저이들의 목적을 달할후로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와의 거리를 멀리하랴는것가름이 저욱히 그를 불쾌하게 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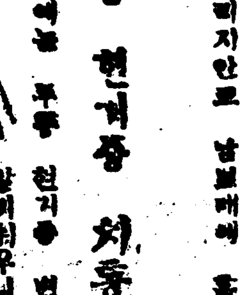
그래서 경재는 결국 만나지 안는것만도 못한、꺼림한가운데 다시 갈라젓다。

앞은곳에 발느면 낫는곳

고통이 더하며 용서지못하게되나니 앞은곳·부은곳·쑤시는곳·멍든곳·피곤한곳에 조금만 발느면 즉접 환부에 침투되어서 병근원의 뿌리를 곳빼버림으로써 무슨약보다도 속히 낫는약입니다

神經痛 류ー마지스…

경련이로오도록 통연고통을주는 신경통·류ー마지스(僂麻)의 발작시에는 사로메치ー루를 조금 발느시고 살살 문질느시면 알마의 物理작용과 藥物의 滲透作用으로 병근원에 作用하야 향기러운약냄새와 함께 상쾌한 기분이들며 그렇게 심하든 고통이 곳 개입니다 미주나 약을발는후 선뜻거리지안코 남보데에 흉처만쑵니다



두통 현기증 치통에…

요새에는 두통 현기증 변두피에 치통은 이 왈키쥐우니 이번에에 흘이 와울며어서 곳치서야 고 하서나 이서운 위상에 족병울낭겨주거나 인이 내어기위우나 사로메치ー루는 그럼듯이 엄고 곳낫숩니다

담결니는곳 쑤시는곳…

담결니시는데나 팔대나 다도미질 바누질을 안꺼서하시다가 일어나실때 생기고 쑤시며 절니는·관육류ー마 저소에는 잊지마시고 本劑를 조곰 발느시면 곳 나어 편하시게됩니다

家庭應急常備藥…

오로 어느가정에도 한개식 상비하여두시지 바람오니 갈작얼발병하야 알흠을 참지못하는데 응급치료로되며 평지낙상 혹은세멍것에 또는 여름감기에 절네 목이 알흘때 벼룩 빈대동에물녀때나 그예방에 우수한 효과가잇슴니 하절을 무사히 제내시는때 큰 보호신이 되는약입니다

매마다가부시고 왈을 신경통류ー마지스에

一五〇瓦…一圓
五〇〇瓦…一圓八十錢
各道藥房에서販賣함

陸軍承認藥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